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자영업자들 뿔났다

환경부, 프랜차이즈 6월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 운영
 “영업지장·위생문제·공간확보 등 영업현실과 맞지 않아”

오는 6월 시행하는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회용컵 보증금 제도가 자칫 커피나 음료 판매업자들에게 심각한 영업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커피·음료를 판매하는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시행 예정인 보증금 제도는 커피나 음료를 판매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매장으로 1회용컵을 반납해도 된다”며 “이는 커피·음료 판매 시장의 현실을 전혀 모르는 정책”이라고 밝혔다.

일부에선 1회용컵 회수가 물릴 경우 별도 인력이 필요하며, 회수한 컵을 따로 모아둘 공간까지 마련해야 하는 등 자영업자 이종고가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23일 프랜차이즈 커피·음료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0일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시행한다.

이 제도에 따르면 1회용컵에 담긴 커피나 음료를 구매한 소비자는 보증금 300원을 받고

해당 컵을 구매한 매장이나 보증금 제도를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 컵을 반납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커피빈 같은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는 물론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같은 제과·제빵 프랜차이즈, 롯데리아,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 프랜차이즈, 베스킨라빈스와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프랜차이즈에 이르기까지 매장이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모두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참여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2개월 여 앞두고 프랜차이즈 업자들은 이 제도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커피나 음료를 최초 구매한 매장이 아니라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으로 반납할 수 있게 되면 매장별로 영업 지장과 위생 문제, 공간 확보 등의 고충이 급증할 수 있어서다.

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컵 1개 당 300원을 받을 수 있어 하루 수 백명이 컵을 가져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컵을 세고 보증

금을 계산해주는 업무가 엄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프랜차이즈 업계에선 1회용컵 수거를 전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뽑아야 할 수 있다며 우려한다.

일부에선 1회용컵 반납이 매장 영업을 방해할 정도로 빈번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스타벅스가 제주도에 도입한 1회용컵 자동 반납기를 확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무인으로 운영되는 자동 반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여러가지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서다.

세척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있다. 음료의 경우 워핑크림 등을 사용하는 제품이 많아 회수 후 세척이 필요해 이를 위한 추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요금과 세제 비용, 인건비 등 다양한 비용이 판매업자에게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 ‘테이크아웃커피 사장님 모임카페’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많이 찾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는 벌써부터 1회용컵 보증금 제도에 대한 비판의 글이 잇따른다.

한 프랜차이즈 가맹점 업주는 “2002년부터 2008년 시행되다 폐지된 1회용컵 보증금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유동인



구가 많은 가게는 1회용컵으로 쓰레기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가맹점 업주는 “세척이 안된 1회용컵은 보증금 지불을 거절할 수 있어야 한다”며 “아니면 더러운 컵을 씻는 데 필요한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정부가 해결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백남진기자

‘코로나 사망자 화장 수요 급증’ 여수·광양 화장시설 전남 전체 한시허용

전남도, 운영시간·회차 확대 등 도민 불편 해소

최근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환절기 등이 겹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화장처리 지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수·광양시 화장시설 사용을 도내 전역으로 한시 허용키로 했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전남지역 코로나19 사망자는 128명으로 누적 사망자 166명의 77.1%를 차지하고 있다.

더욱이 3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사망자도 전체의 절반이 넘는 91명



(54.8%)에 달하고 있다.

사망자 증가에 따른 화장 수요가 늘면서 이용자들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전남지역의

경우 현재 화장 지연으로 3일차 장례를 치르지 못한 4-5일장이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남도내 화장시설은 목포시·여수시·순천시·광양시·해남군 등 5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다. 화장로는 총 19기이지만, 화장시설마다 1기의 예비 화장로를 두도록 하고 있어 실제 운영 화장로는 14기다.

이 중 순천시 화장시설은 전남을, 목포시와 해남군 화장시설은 전국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반면 여수시와 광양시 화장시설은 시 조례에 따라 해당 시지역 주민만을 대상으로 제한해 운영토록 규정하고 있다.

전남도는 화장 지연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오는 4월 15일까지 26일간을 화장시설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여수시·광양시의 화

장시설에 대해 전체 도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목포시와 해남군 화장시설에서는 도민이 우선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특히 화장시설의 수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예비 화장로 적용없이 19개 모든 화장로를 가동하도록 규제도 완화했다.

여기에 화장시설 운영 시간을 확대해 1기당 1일 평균 4.6회였던 회차를 5회로 늘려 도내 전체 화장 수용능력을 현재 1일 평균 79건에서 89건 이상으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도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한식을 전후로 성행하는 개장 유골 화장을 보류하거나 최소화하길 바란다”며 “급증하는 화장 수요에 적극 대응, 빠른 시일에 화장시설이 안정화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택영기자

금·토요일 쉽니다 홈페이지 i-honam.com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

네 119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집 좀 가게 응급차 좀 불러줘요”

“지갑 잃어버렸는데 좀 찾아줘요”

소방관은 비서가 아닙니다.

3년간 소방관의 사소한 생활민원성 출동 124만 9932건, 하루 평균 1,141회 119 본연의 임무는 응급구조입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국민 정재홍·서관우·조윤영 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1 공익광고 공모전 수상작